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 출애굽기 31:18-34:35을 중심으로 -

이영재*

들어가는 말

사경은 이야기체와 법문이 아우러진 커다란 문단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백성에게 베푼 설교문인 동시에 민수기의 흐름을 잇는 이야기이다. 신명기는 설교문과 이야기의 두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신명기 1:6-11:28은 모세의 설교이고, 신명기 1:1-5; 11:29-34:12은 민수기를 잇거나 토라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제시하겠지만, 이 둘 중 신명기의 설교문에 담긴 모세의 회고담은 사경의 보도와 많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경과 신명기의 차이점은 스쿼레스(D. E. Skweres) 이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¹⁾ 종래의 사문서 가설은 사경의 JE를 D가 참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E의 존재가 거의 부정되고 J의 솔로몬 왕국 기원설도 크게 의문시되면서 종래의 문서가설은 미궁에 빠졌다.²⁾ 1960년대 말에 페를리트(L. Peritt)가 계약사상을

* 전주성경학당 길잡이, 한신대학 및 전주대학 강사, 구약학

1) D. E. Skweres, *Die Rückverweise im Buch Deuteronomium* (Rome: Biblical Institute, 1979). 스쿼레스는 사경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신명기의 모세 회고담들을 관찰하였으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2) 독일의 소장학자들이 영국의 몇몇 학자들을 초빙하여 야훼스트에 반대하는

신명기학파에게서 나온 것으로 논증한 이후,³⁾ 사경에 있는 계약 이야기의 요소들은 북왕국 멸망 이후 히스기야 시대의 산물이거나 요시아 시대의 산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렌토르프(R. Rendtorff)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자손과 땅을 약속하는 상투어⁴⁾들이 모두 신명기학파의 편집층에 속한다고 주장했다.⁵⁾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쟁점을 다루었다.

블룸(E. Blum)과 존스톤(W. Johnstone)은 오경이 형성되기 전에 신명기학파의 초본이 있었음을 논증했다.⁶⁾ 반시터즈(J. Van Seters)는 포로기에 J가 신명기를 토대로 사경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⁷⁾ 쉬밋

소리를 드높였다. 그 세미나의 결과물을 “J여, 잘가라!”는 날카로운 서명의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J. C. Gertz, K. Schmid, and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3) L. Perl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69).
- 4) 영어 용어 ‘포물라’(formula)를 흔히 ‘공식구’라고들 번역한다. ‘공식구’라는 용어는 우리말 사전에 없다. ‘공식어’(公式語)란 단어는 있으나 그 의미가 다르다. 대신에 ‘상투어’(常套語)란 적절한 단어가 있다.
- 5) R. Rendtorff,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JSOTS 89, 1990; org. ed. BZAW 147, 1977); R. Rendtorff, *The Canonical Hebrew Bible*, D. E. Orton, trans. (The Netherlands, 2005; org. e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 6) W. Johnstone, “Reactivating the Chronicles Analogy in Pentateuchal Studies,” *ZAW* 99 (1987), 16-37; W. Johnstone, *Chronicles and Exod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JSOTS 275, 1998);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84);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7) J.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J.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London: New

트(H.-C. Schmitt)는 P보다 더 후대에 신명기학파의 후손들이 나와서 오경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한다.⁸⁾ 로퐁크(N. Lohfink)는 출애굽기 32-34장과 신명기 9-10장의 본문 의존 방향을 논하면서 신명기의 본문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대본으로 작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종래의 JE 선제론을 고수하였다.⁹⁾ 그와는 반대로 게르츠(J. C. Gertz)는 출애굽기 본문의 기본 본문을 포로기 초기의 것으로 간주하면서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를 전제하였는데 이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 본문의 대본이 되었다고 추정했다.¹⁰⁾ 오토(E. Otto)는 신명기의 발달사를 기준으로 오경의 형성사를 일관되게 재구성하였다.¹¹⁾

Haven, 1983);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Kampen: Kok Pharos, 1994); J. Van Seters, *The Pentateuch: a social-scienc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8) H.-C. Schmitt, "Die Erzählung vom Goldenen Kalb Ex 32 und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S. L. McKenzie and T. Römer, eds., *Rethinking the Foundations: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in the Bible: FS John Van Seters*, BZAW 2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235-250; H.-C. Schmitt, "Das sogenannte jahwistische Privilegrecht in Ex 34,10-28 als Komposition der spätdeuteronomistischen Endredaktion des Pentateuch," J. C. Gertz, K. Schmid, and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157-171.
- 9) N. Lohfink, "Deuteronomium 9,1-10,11 und Exodus 32-34: Zu Endtextstruktur, Intertextualität, Schichtung und Abhängigkeiten," M. Köckert und E. Blum, ed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Freiburg-Göttingen, 1991), 41-87.
- 10) J. C. Gertz, "Beobachtungen zu Komposition und Redaktion in Exodus 32-34," 88-106.
- 11) 엑하르트 오토는 신명기를 통시 읽기의 기준점이자 출발점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신명기 13장의 법문을 근거로 가장 고대의 원신명기를 추정하는 데서 통시 읽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차차로 DD, DtrD, (P), HexR, PentR,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 출애굽기 31:18-34:35¹²⁾와 신명기 9:7-10:11¹³⁾ 사이에 어느 본문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분분하게 논의되었다.¹⁴⁾ 나는 이 쟁점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두 평행 본문이 토라 안에 놓여 있는 위치를 밝히고 그 위치에서 그것들이 각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에 나타나는 사경의 사건 보도들에 대한 회고담을 통째로 조감해 볼 것이다. 그 후에 나는 소위 금송아지 일화로 불리는 출애굽기 31:18-34:35에 집중할 것이다.¹⁵⁾

post-P의 순서로 오경 형성사를 추적한다. 매 단계마다 신명기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s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그가 ‘계약법’(BC)을 왕국시대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반해서 반시터즈는 계약법을 포로기의 디아스포라를 위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J. Van Seters, *A Law Book for the Diaspora: Revision in the Study of the Covenant Co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12) 흔히들 ‘출애굽기 32-34장’을 하나의 문단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여기서 출애굽기 31:18을 제외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31:12-17의 소단락과 출애굽기 35:1-3의 소단락이 대칭되어 그 사이의 출애굽기 31:18-34:35의 문단을 감싸고 있다.
- 13) 노르베르트 로핑크는 신명기 9:1-10:11을 한 문단으로 구분한다. N. Lohfink, “Deuteronomium 9,1-10,11 und Exodus 32-34,” M. Köckert und E. Blum, eds., “Deuteronomium 9,1-10,11 und Exodus 32-34. 그러나 신명기 9:1-6의 단락은 신명기 10:12-22의 단락과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므로 신명기 9:1-10:22을 큰 문단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 14) K. Schmid, “Israel am Sinai: Etappen der Forschungsgeschichte zu Ex 32-34 in seinen Kontexten,” M. Köckert und E. Blum, eds., *Ibid.*, 9-40.
- 15) 「Canon&Culture」 창간호에 전정진은 이 쟁점을 다루는 논문을 실었다.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황금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서울: 한국신학정보원, 2007, 봄), 192-234. 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일화가 보여주는 차이점들은 ‘장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1. 금송아지 일화의 위치와 역할

1.1. 신명기 내에서 금송아지 일화의 회고담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금송아지 일화에 대한 모세의 회고담이 신명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의 짜임새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신명기의 짜임새

- 가. 신 1:1-6, 서언: 출애굽기-민수기를 되돌아 보면서
- 나. 신 1:7-3:29, 광야 회고담
 - 다. 신 4:1-49, 설교문: 바알브올/호렙 신현현기 회고담
 - 라. 신 5:1-7:26, 법: 십계명(계약법) 및 호렙 신현현기 회고담
 - 마. 신 8:1-20, 겸손: 만나기 회고담
 - 바. 신 9:1-6, 목이 곧은 백성/반역을 일삼은 백성
 - 중앙. 신 9:7-10:11, 금송아지 범죄와 계약 갱신기 및 광야 사건들**
 - 바'. 신 10:12-22, 목이 곧은 백성: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 마'. 신 11:1-25, 겸손: 홍해 도해기와 다단/아비람의 반역기
 - 라'. 신 11:26-29:1(힉 28:69),¹⁶⁾ 법: 신명기법(계약법/정결법/성결법의 회고담)
 - 다'. 신 29:2(힉 1)-30:20, 설교문: 모압법의 선포
 - 나'. 신 31:1-34:8, 광야 이야기: 민수기를 잇는 모압 이야기/모세의 사망기
- 가'. 신 34:9-12, 결언: 여호수아서를 내다보면서 모세를 회고함

위의 표를 보면 신명기 전체는 신명기 9:7-10:11의 문단을 중심 축으로 각각의 문단들이 서로 대칭되게 교차 구도¹⁷⁾로 짜여 있음을

16) (힉)이란 표기는 맛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의 장절을 나타낸다.

알 수 있다.¹⁸⁾

신명기 9:7-10:11에 여러 사건들이 회고되고 있다. 호렙산 돌판 수령기(신 9:7-11), 금송아지 숭배기(신 9:12-21)와 다베라기/맛사기/기브룻하다아와기/가데스 바네아기 회고(신 9:22-24),¹⁹⁾ 모세의 중재 기도(신 9:25-29), 언약궤 속에 새 돌판을 안치함(신 10:1-5),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제사장 계승 및 레위인의 제사장 임직(신 10:6-9), 호렙산 출발 명령(신 10:10-11)이 회고된다. 신명기 9:22-24; 10:6-9의 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출애굽기 24:12-18; 31:18-34:35의 본문과 평행을 이룬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주님을 거역하기만

-
- 17) ‘키아즘’(chiasm)을 우리말로 흔히 ‘교차대구’(對句)라고 번역한다. ‘키아즘’은 어구들뿐만 아니라 문장들 또는 문단들 사이에서도 교차된다. ‘대구’란 협소한 개념을 지양하면서 그냥 ‘교차 구도’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낫다.
- 18) 왕대일은 신명기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반복되는 어구들에 주목하면서 세 연설들(신 1:1-4:43; 4:44-28:68; 29:1-30:20)을 구분하고 거기에 신명기 31:1-34:12의 후기가 첨가되어 있다고 보았다. 왕대일은 오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신명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규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경과 신명기 사기의 차이들을 논하지 않았다.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38-44. 그는 위의 책 44쪽에서 신명기 5:1-11:32을 한 문단으로 구분했지만 231쪽에서는 신명기 6:1-11:32을 한 문단으로 구분했다. 거기에 신명기 5장은 빠져 있다. 219쪽에서는 신명기 4:44-5:33을 두 번째 연설의 첫 번째 단원 신명기 4:44-11:32의 머리말 구실을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한동구는 신명기의 구조를 언급하지만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17. 그는 위의 책 43쪽과 45쪽에서 출애굽기 18:13-26을 민수기 11:11-17, 24-30과 평행된다고 보지만 차이점들을 논하지 않았다. 그는 신명기 9:6-10:11을 하나의 문단으로 규정한다(위의 책, 69-70쪽). 장일선은 신명기의 구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로펑크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9:1-10:11을 하나의 문단으로 구분했다. 장일선, 『신명기』, 100주년기념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59.
- 19) ‘~기(記)’라는 표현은 『서유기』, 『걸리버 여행기』와 같이 이야기의 장르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하였다. 주님께서는 거듭 참으시고 용서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참이다. 따라서 땅을 얻어 잘 살게 될 터인데 거기에는 백성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총만 있다. 그러므로 땅에서 살 때 모름지기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것이 중앙 문단의 주제인데 이것은 다른 아님 토라의 의인론이라고 부를 만하다.²⁰⁾

1.2. 토라 안에서 금송아지 일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평행 본문 출애굽기 31:18-34:35과 신명기 9:7-10:11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보려면 토라 전체의 짜임새를 펼쳐 놓아야 한다. 토라의 짜임새는 가. 창세기, 중앙.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 가. 신명기의 삼부작으로 되어 있다.²¹⁾ 나는 중앙 문단인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

20) 존스톤과 로펑크가 신명기 9-10장의 주제를 의인론(또는 칭의론)이라고 규정하였다.

21) 에릭 쟈어는 토라를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의 오부작으로 구분한다. 쟈어가 창세기와 신명기의 대칭성을 본 것에 나는 찬성한다.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Verlag, 2001⁴ (1995¹, 1996², 1998³)]. 74ff. 그러나 그레이미 올드가 비판한 대로 나는 쟈어가 주장하는 레위기의 독립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A. G. Auld, "Leviticus at the Heart of the Pentateuch?," F. 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y Dougla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JSOTS 227, 1996), 40-51. 나는 시내 단화를 통일성을 갖춘 단일 문단으로 판정한다. 볼프 크니림은 토라를 (창 1-11장) - (창 12장-신 34장)의 이부작 구도로 본다. R. P. Knierim,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356. 그의 제자 이원우는 민수기 10:12-36:13를 모두 이부작 구도로 분석했다. W. W.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Grand Rapids: Eerdmans, 2003). 나는 이러한 이부작 구도에 무리가 많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이원우는 2004년 그로닝엔 SBL 국제학회에서 민수기 28-29장의 짜임새를 교차 구도라고 분석하여 발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부작 구도의

의 짜임새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의 짜임새

- 가. 출 1:1-7:7, 이야기의 발단: 애굽에서/모세의 소명
- 나. 출 7:8-15:21, 야훼의 승리 I/애굽의 파라오를 물리침
 - 다. 출 15:22-18:27, 광야 I부/마라, 신광야(만나), 므리바, 르비딤
 - 중양: 출 19:1-민 10:10, 시내 단화: 하나님의 산에서**
 - 다. 민 10:11-20:29, 광야 II부/다베라, 기브롯핫다와/하세롯/가데스
 - 나. 민 21:1-26:65, 야훼의 승리 II/아랏왕, 아모리왕, 바산왕, 모압왕을 물리침
 - 가. 민 27:1-36:13, 이야기의 마무리: 모압에서/모세의 은퇴

위의 표는 토라의 중앙부가 교차 구도로 짜여 있으며 그 중심부에 시내 단화가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토라 전체는 시내 단화를

일관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W. W. Lee, "Instructions about Various Public Offerings in Numbers 28.1-30.1: A Conceptual Approach," (Gronningen: SBL International Conference, 2004). 제이콥 밀그롬은 욕경 전체를 교차 구도로 분석해 냈는데 시내 단화의 중심 위치를 지적한 점에 나는 동의하지만 그가 욕경을 상정한 것과 신명기의 상우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점에 약점이 있다.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PS, 1990), xxii. 시내 단화의 통일성을 의식해서인지 코츠와 프로프는 출애굽기 1-18장을 따로 묶어 주석했다. G. W. Coats, *Exodus 1-18: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 IIA* (Grand Rapids: Eerdmans, 1999); W. H. Propp, *Exodus ABC 2* (2001).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시내 단화로 얹혀 있기 때문에 각기 단권으로서 통일성을 갖춘 짜임새를 보여주지 못한다. 죠셉 블렌킨소프가 오경을 삼부작으로 구분했으나 중앙부의 짜임새를 애굽 편-광야 편-시내산 편의 삼부작으로 구분한 것과 그리면서도 레위기를 오경의 중앙부라고 단정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J. Blenkinsopp,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47, 183ff.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 시내 단화의 양편에 광야 제1부와 광야 제2부가 서로 대칭되게 배열되어 있다.

시내 단화의 문단은 크게 가. 출애굽기 19:1-24:1, 중앙. 출애굽기 24:12-40:38, 가'. 레위기 1:1-민수기 10:10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²²⁾ 중앙부 문단 출애굽기 24:12-40:38의 짜임새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출 24:12-40:38 문단의 짜임새

- 가. 출 24:12-18, 신현현/영광
- 나. 출 25:1-31:11, 성막/회막 건립 명령
- 다. 출 31:12-17, 안식일 I
- 중앙. 출 31:18-34:35, 금송아지 일화와 계약 갱신
- 다'. 출 35:1-3, 안식일 II
- 나'. 출 35:4-40:33, 성막/회막 건립 시행
- 가'. 출 40:34-38, 신현현/영광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금송아지 일화는 토라의 중심부 시내 단화의 중앙부분에 놓여 있다.²³⁾ 출애굽기 31:18-34:35의 짜임새는 가. 출애굽기 31:18-20, 중앙. 출애굽기 31:21-34:8, 가'. 출애굽기

22) 출애굽기 20-23장의 법문은 레위기 1:1-민수기 10:11의 법문과 상응한다. 출애굽기 19장에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은 레위기의 정결법과 상응하며 출애굽기 24:3-8의 제의는 레위기 1-10장의 제의법과 상응한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출애굽기의 계약법과 상응한다. 본문분량의 불균형 문제는 민수기 28-29장의 교차 구도에 할당된 본문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불균형되게 배치된 양상과 동일하다.

23) 이 구분은 전정진이 제시한 ‘교차 대구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그의 분석표에는 출애굽기 25:1-9; 27-30장 등 빼놓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나는 한 요소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2007), 200.

34:9-35의 삼부작으로 되어 있다. 이 짜임새의 전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출 31:18-34:35 문단의 짜임새

큰 문단	중간 문단	소문단	내 용
가. 출 31:18-32:20	ㄱ. 31:18-32:6		돌판 하사/금 송아지 제작 송배/축일 제정 제사 지냄
	중. 32:7-14		주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진멸 취소
	ㄱ'. 32:15-20		돌판 가지고 하산/바알 송배목격/모세의 진노/돌판 깎
중양. 출 32:21-34:8	ㄱ. 32:21-35	a. 32:21-25	모세의 아론 심문/아론의 책임 전가
		x. 32:26-29	모세의 백성 징계/레위인의 희생/레위인의 제사장 임직
		a'. 32:30-35	모세의 재등산/속죄 호소/거절당함
	중. 33:1-16	a. 33:1-6	출발 명령/하나님의 임재 거부/백성의 회개/장신구 벗음
		x. 33:7-11	회막에 신현현/모세의 말씀 중재/백성의 예배/여호수아 직임
		a'. 33:12-16	신현존을 위한 모세의 간청/하나님의 동반 허락
	ㄱ'. 33:17-34:8	a. 33:17-23	신현현 요청/친견 증거/죽지 않도록 뒷 모습만 보여주심
		x. 34:1-4	새 돌판을 만들어 재 등산할 것을 명하자 모세 등산
		a'. 34:5-8	신현현/야훼의 계시/공홀, 자비, 인자, 오래 참음, 신실하심
가. 출 34:9-35	ㄱ. 34:9-17		새언약 체결/십계명의 요약/다른 신과 신상 제작 금지
	중. 34:18-26		새언약 체결/계약법의 요약 반복/
	ㄱ'. 34:27-35		모세와 하나님의 기록/빛나는 모세 얼굴/너울을 씌

위의 표를 보면 중앙부는 출애굽기 32:21-34:8이고 이 큰 문단의 중앙부는 출애굽기 33:1-16이며 그 중간 문단의 중앙부는 출애굽기 33:7-11의 소문단임을 알 수 있다.²⁴⁾ 출애굽기 33:7-11의 문단을 흔히 ‘여담’²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토라의 전체 짜임새를 살펴볼 때 출애굽기 33:7-11은 토라 이야기의 전체를 제어하는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²⁶⁾ 이러한 짜임새에서 금송아지 일화인 소문단 출애굽기 31:18-32:6(가-ㄱ)은 시내 단화의 중심 쟁점을 제기하며 전체 문단을 여는 구실을 한다. 이 서두의 소문단이 소재로 다루는 소의 표상은 전체 문단을 마무리하는 소문단 출애굽기 34:28-35(가-ㄱ)의 쇠뿔(빛)이란 표상과 상응하면서 포괄형²⁷⁾을 이루고 있다.²⁸⁾

24) 렌토르프는 레위기 16장(대속죄일 문단)을 토라의 중심부라고 판정한다. R. Rendtorff, “Leviticus 16 als Mitte der Tora,” *Biblical Interpretation* vol. XI, No. 3/4, 2003, 252-258

25) 브리히토 이래 공시 읽기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이그레션’(digression, 餘談)이라고 부른다. H. C. Brichto,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Exemplar of Biblical Idolatry,” *Toward a Grammar of Biblical Poe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org. ed.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 Literary Analysis of a Fable on Idolatry,” *HUCA* 54, (1983)], 88-121. 앞뒤 문맥을 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담’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26) 이 문단은 신 현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상향을 묘사한다. 앞쪽으로는 에덴동산 심상을 통해 창세기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심상을 통해 신명기로 연결된다. 그 핵심은 회막에 언약궤 뚜껑 위에 현존하시는 야훼와 모세의 대화에 있다(출 25:22; 롬 3:25, ‘화목 제물’=헬라스테리온=카포렛).

27) ‘포괄형’(包括形, inclusio)이라 함은 한 문단의 앞과 뒤에 마주보도록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거나 어구나 문장이나 문단을 반복해서 배치해 놓은 모양을 가리킨다.

28) R. W. L. Moberly,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3), 109; 서명수, “금송아지 주조(鑄造)와 모세의 ‘얼굴의 광채’(qaran)에 대한 재고,” 왕대일 편, 『말씀

이처럼 토라의 중심부에 배치된 금송아지 일화는 신명기의 중심부에 배치된 광야 사건 회고담(신 9:7-10:11)과 그 위치상 서로 상응한다. 이 두 중심부들이 창세기와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의 짜임새를 살펴보자.

<표 5> 창세기의 짜임새

큰 문단	중간 문단	내용
가.	ㄱ. 1:1-2:3	서문: 창조(안식일 주제)
	중앙. 2:4-6:4	톨도트I 하늘과 땅: 에덴 동산과 타락
창 1:1-11:26	ㄱ'. 6:5-11:26	톨도트II 노아와 아들들: 새 창조
중앙. 족장사	ㄱ. 11:27-25:18	톨도트III 데라와 아들들: 아브라함/롯/이삭/이스마엘
	중앙. 25:19-36:43	톨도트IV 이삭과 아들들: 이삭/야곱/에서/라반/열두 손자들
	창 11:27-46:27	톨도트V 야곱과 아들들: 야곱/유다/요셉/열두 아들들/두 손자들
가.	ㄱ. 46:28-47:31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와 야곱의 유언
	중앙. 48:1-49:28	야곱의 축복: 에브라임과 므나세, 그리고 열두 아들들
창 46:28-50:26	ㄱ'. 49:29-50:26	후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²⁹⁾ 창세기는 가. 창세기 1:1-11:26, 중앙. 창세기 11:27-46:2, 가'. 창세기 46:28-50:26의 삼부작으로 짜여 있다. 창세기의 중심부는 이삭의 톨도트인 창세기 25:19-36:43 문단이다. 이 문단에는 야곱의 벤엘 이야기와 압복강 씨름 이야기와 벤엘 예배 이야기가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집’(베이트 엘로

의 뜻 밝혀 주시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0.

29) 더 상세한 짜임새와 설명은 지면상 제시할 수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지만 나의 학위논문에는 있는 상세한 논증을 참조할 수 있다. Y. J. Lee,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Unit Exodus 31:18-34:35 as the Centre of the Centre of the Pentateuch: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of the Tex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berdeen, unpublished, 2004).

함; 창28:21)이라든가 ‘야훼를 보았다’[과님 엘-과님: 창 32:31; 출 33:11; 신 5:4(과님 버과님); 신 34:10]는 어구를 통해서 창세기의 중앙부는 시내 단화와 마찬가지로 신 현존의 주제를 다룬다.

결론을 내리자면, 창세기의 중앙부(창 25:19-36:43)와 시내 단화의 중앙부(출 31:18-34:35)와 신명기의 중앙부(신 9:7-10:11)가 각기 백성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단단히 결합하여 토라 전체를 단단한 하나의 통일체로 엮어주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짜임새의 연관성을 잃어낸 바탕 위에서 작은 문단들 사이의 세밀한 관련성을 짚어나가야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성서 전체’³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다.

2. 사경의 보도와 신명기의 회고담의 차이들

신명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모세의 회고담이 들어 있다. 이 회고담들은 설교문이란 장르로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민수기를 뒤잇는 이야기 요소들은 신명기 31-34장에 실려 있다. 이 부분은 ‘설교문’이란 장르로 표현되지 않고 ‘이야기’ 장르로 표현되어 있다. 신명기 안에 이야기 장르와 설교문 장르가 함께 들어 있다.³¹⁾ 재미있게도 이야기 장르 안에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나타난다.

30) ‘성서 전체’(scriptura tota)라는 명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성서주석서에서 원리로 채용된 대명제이다. 김창주, “개혁교회 신앙의 성서적 토대,” 『말씀과 교회』 42:1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2007), 99-101.

31) 전정진은 신명기의 최종 본문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신명기 안에 서로 다른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는 현상을 주목했어야 한다. 왕대일은 신명기를 설교문인 동시에 예배 의식서로 간주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헌법’이라고 보았다.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20, 24, 36-37.

2.1. 모세의 사망기

민수기 27:12-14의 진술은 신명기 32:48-52의 진술로 이어진다. 가데스-프리바(민 20:1-13)에서 거역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호르산에서 데려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데려가려고 하신다. 이때 모세는 나이 120세로 아직 기력이 정정하여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모세를 하느님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지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신 34:6-7). 모세가 120세로 생을 마감한 것은 창세기 6:1-3에서 미리 예언된 그대로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다.³²⁾ 창세기 6:3의 예언이 신명기 34장에 가서야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6:1-3, 민수기 20:1-13, 27:12-14, 신명기 32:48-52, 34:6-7의 진술들은 토라 전체를 꿰뚫고 흐른다. 이 일관된 흐름에 이질감을 주는 요소가 신명기 31:1-2의 진술이다. 120세가 된 모세는 기력이 쇠진하여 백성을 더 이상 영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장르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토라의 최종 저자가 사용한 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2) 조상열, “창세기 6장 2, 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친족성,” 『구약논단』 24 (서울: 한국구약학회, 2007), 145-156. 조상열이 ‘네필림’과 ‘깁보르’의 관계를 논한 것과 가나안 만신전의 하위신들과 ‘버네 엘로힘’의 상관성을 길가메쉬의 신의 아들들에 관련지어 논한 것은 매우 옳바르다. 그러나 조상열은 토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연관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모세가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점인 가데스-프리바에서 야훼께서는 모세의 상승을 중단시키신다.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필경 추앙받아 왕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2.2. 유월절과 무교절

신명기 16:1-8은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레째는 ‘아체레트’(עֲצֵרֶת; 『개역/표준』, ‘성회’; 『공동』, ‘축제 마감날’)로 모이라고 한다. 출애굽기 12:1-28, 13:3-10, 23:15, 34:18, 레위기 23:8, 민수기 28:16-25에 의하면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며 둘째 날은 ‘성회(미크라 코데쉬)’로 모이는데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드레째에 다시 ‘성회’로 모인다. 도합 8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킨다. 이러한 차이는 장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2.3. 광야 여정

신명기 1:2, 19을 보면 호렙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을 걸었다. 민수기 10:11에서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기브롯하다아와에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12:15에는 모세에게 대항한 미리암이 벌을 받아 진영 바깥에서 이레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겪은 후에 백성은 민수기 13:26에 가서야 비로소 가데스에 도착한다.

신명기 2:14의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렛까지 38년을 유랑하였다’는 진술은 민수기에 없다. 더구나 민수기 33:1-49의 여정 기착지 목록을 보면 가데스는 민수기 33:35, 37에 기명되어 있다. 이것은 민수기 20:1-13의 여정 보도와 일치하지만 신명기가 회고하는 가데스바네아의 기착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신명기에는 ‘바란광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만, 민수기 10:12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광야’에 도착했다고 한다. 심지어 신명기 33:2에는 ‘바란’이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³³⁾과 세일산과 더불어 ‘산’으로 명명된다.

위낙에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출 3:18; 5:3; 8:27(히 23)). 이 진술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출 15:22). 그렇다면 홍해 도해 이후에 곧장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야 한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얹어 백성을 하나님의 산으로 신속,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진술은 아마도 사흘길 여행 시나리오의 선존재를 반영하는 듯하다(출 19:4). 광야 사흘길 여행 후에 백성은 산에서 사흘을 예비하고 기다렸으며 마지막 날에 신현현을 체험하고 언약 체결 제사를 드렸다. 이 시나리오는 사흘 더하기 사흘 더하기 하루, 도합 이레의 일정이다($3+3+1=7$). 이것은 신명기 16:1-8이 보여주는 유월절 일정과 일치한다.³⁴⁾

이러한 신명기학파의 광야 여정 시나리오는 최종 본문에서 슈르 광야, 엘림, 신평야, 르비딤, 시내산, 바란광야의 일정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다. 토라의 최종 저자는 자신이 입수한 신명기학파의 광야유랑 연대기를 자신의 신학에 맞추어 수정하고 확장시켰음에 틀림없다.

신명기 8장과 11장은 만나 이야기와 다단/아비람 반역기의 기억을 각각 담고 있다. 이 둘은 중앙부인 신명기 9:7-10:11에 회고된 호렙-다베라-맛사-기브룻핫다아와-가데스바네아의 사건들을 양쪽에서 감싸고 있다. 만나 이야기는 신명기 8장에서 구구절절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라는 설교의 자료로 이용된다. 다단/아비람 반역기도

33) 신명기는 신명기 32:2에서만 시내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늘 호렙산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에서도 시내산이란 명칭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호렙산이란 명칭만 나온다. 이것은 장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의 호렙산과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이에 저술 시기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느헤미야 9장에 시내산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34) W. Johnstone, *Chronicles and Exodus*, 203-211.

신명기 11장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설교의 자료로 이용된다. 이 두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 배교기를 위시한 광야 사건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신명기 9:7-10:11은 출애굽기 24:12-17; 31:18-34:35를 회고한다. 이 가운데 신명기 9:22-23은 다베라, 맛사, 기브롯핫다아와, 가데스바네아의 광야 사건을 회고한다. 신명기 9:22-23을 세심하게 읽어 보자.

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개역』 신 9:22-23).

이 본문에 의하면 신명기가 알고 있는 사건의 순서는 (다베라→맛사→기브롯핫다아와→가데스바네아)의 순서이다. 이상하게도 민수기에서는 다베라기(민 11:1-3)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브롯핫다아와기(민 11:4-35)가 등장한다. 그 중간에 있어야 할 맛사기가 보이지 않는다.

최종 본문에서 맛사기는 출애굽기 17:1-7의 맛사-므리바기와 민수기 20:1-13의 가데스-므리바기로 나누어 보도되고 있다. 출애굽기 17:1-7은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제를 말하고 민수기 20:1-13은 모세의 불순종이란 주제를 뒷받침해 준다. 신명기가 알고 있던 맛사기는 다베라기와 기브롯핫다아와기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맛사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최종 본문에 응용되어서 출애굽기 17:1-7과 민수기 20:1-13의 두 가지 사건으로 개작되었다.

이외에도 최종 본문에는 맛사기를 원용하여 신명기학파의 문체로 작성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한다.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한 이야기

(출 15:22-27)가 그것이다. 내가 보기에, 본디 하나의 기사였던 맛사 이야기가 최종 본문에 이르러 세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변용된 것이다. 신명기에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와 가데스-므리바의 반역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두 보도를 신명기의 저자가 자신의 설교문 장르를 위하여 일부러 생략했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광야 생활 초기에 만나와 함께 물도 주었어야 할 것이다. 신명기의 모세는 물을 공급한 맛사기를 다베라 반역기 이후, 즉 호렙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일어났다고 회고한다. 그 동안 백성은 물을 마시지 않고 지냈던가? 애굽을 탈출하여 호렙산에 당도하기까지의 기간은 신명기의 유월절 시나리오(신 16:1-8)에 따르면 불과 사흘이 걸렸다. 신명기 9:21은 백성이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호렙산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그리고 금송아지를 파쇄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등정하여 40일을 체류하는 동안, 도합 80일 동안 백성은 산곡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다고 신명기의 모세는 기억한다. 신명기의 회고담에 의하면, 맛사에서 물이 없어 불평했던 상황은 호렙산을 출발한 직후 다베라의 화재 사건을 겪고 난 후 발생했다.

신명기가 회고하는 이 유랑기의 순서는 출애굽-민수기의 최종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의 순서와 다르다. 신명기 8:1-3에 회고된 만나기는 출애굽기 16:1-36에 보도된다. 출애굽기의 만나기는 안식일 주제와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주제에 봉사하고 있다. 만나가 꼭 필요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홍해를 건넌 후 호렙산에 도착하는 그 사이, 식량이 떨어진 때였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6:1-36의 최종 본문은 안식일 주제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신명기가 회고하는 것과 같이, 백성의 반역이란 주제와는 무관하다. 다만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보도는 나오지만 모세의 중재나 하나님의 용

서와 같은 반역기의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다. 신명기의 저자가 자신의 장르를 창작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기를 일부러 변용한 것 같지는 않다.

2.4. 고라의 반역기

신명기 11:6에 회고된 반역기는 다단과 아비람을 거명하지만 민수기 16장에서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고라’와 ‘온’은 거명하지 않는다. 신명기의 장르를 위하여 일부러 이 두 인물이 생략된 것 같지는 않다. 신명기학파는 ‘고라’와 ‘온’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2.5. 모세의 과중한 업무와 백성의 조직

신명기 1:9-18을 보면 모세는 업무가 과중하여 백성을 십진법 단위로 조직한다. 출애굽기 18:13-27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백성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신명기 1:15는 ‘패장’(『개역』)이란 직급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공동개정』, ‘각 지파의 공무원’; 『표준역』, ‘각 지파의 지도자’).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은 정작 민수기 11:14-15에 나온다. 여기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을 칠십인 장로에게 분여해 줌으로써³⁵⁾ 문제가 더욱 꼬인다. 모세의 지도력만 삭감되고 말았다. 출애굽기 18장의 백성 조직은 토라의 짜임새에 따르면 민수기 10:1-10의 열두 지파에 따른 백성 조직에 상응한다. 이러한 세 가지 장면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하나의

35) 민수기 11:17의 동사 ‘아찰’(אָחַל)은 모세에게 있는 성령을 ‘덜어내어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사의 어간은 출애굽기 24:11의 ‘아칠람’(אֲחִילָם)(『개역』, ‘존귀한 자들’; 『표준』, ‘지도자들’; 『공동개정』, ‘선발된 이 사람들’)에서 보이는데 이 두 단어의 상관 관계는 연구할 과제이다.

전승 자료가 여러 가지로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

2.6. 가나안 땅 정탐기

신명기는 ‘가데스바네아’라고 명명하고 사경에는 민수기 27장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그냥 ‘가데스’라고만 명명한다. 이것은 신명기가 신명기 33:2을 제외하면 오로지 ‘호렙’이란 명칭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신명기 1:22에는 하나님의 진격 명령이 내려짐에도 백성은 정탐꾼 파견을 요청하고 모세는 그 요청대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민수기 13:1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탐을 지시하신다. 정탐한 영역에도 차이가 많다. 민수기는 가나안 전역을 두루 정탐하였다고 보도하지만 신명기는 에스골 골짜기 지역만 정탐하였다고 한다. 이 정탐사건 때문에 모세가 징벌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고 신명기 1:37; 3:23-27은 보도한다. 하지만 민수기 20:1-3의 보도에 의하면 모세는 아론과 마찬가지로 가데스-므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다. 이 진술은 민수기 27:12-14로 이어지고 신명기 32:48-52로 건너가서 신명기 34:6-7로 이어진다. 특이하게도 신명기 4:21은 모세가 금송아지 범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듯 회상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모두 장르의 차이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2.7. 에돔, 모압, 암몬

신명기 2:4-8, 29은 에돔과 다툼을 피하려고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고 회고한다. 신명기 23:7은 에돔이 동족이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에돔 땅을 우회한 이야기는 민수기 20:14-21에 보도

되어 있다. 에돔 왕이 마주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빙 돌아서 가야했다고 한다. 여기에 우호 분위기는 전혀 없다.

신명기 2:9-13, 29에는 모압이 동족이기 때문에 화친하여 평화로운 가운데 그 땅을 통과했다고 회고한다. 이런 진술은 신명기 23:3에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는 것과 정반대된다. 민수기 22-24장에 의하면 모압왕 발락은 점쟁이 발람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신명기 2:18-23, 29에 의하면 암몬과 화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명기 23:3과 일치하게도 민수기 21:24은 암몬의 국경수비가 너무나 막강하여 행렬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명기 24:24-37을 보면 아모리왕 시혼을 격파한 사건은 모압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수기는 시혼을 격파한 후 모압을 격파했다고 보도한다. 이 모든 차이를 장르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2.8.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신명기 3:21-22을 보면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후계자로 임명한다(신 3:28). 그러나 민수기 27:12-23에는 동쪽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아바림 산줄기에서 엘르아살을 제사장에 임명한다. 이 사건은 신명기 31:1-8에 재론되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신명기 10:6에 의하면 모세라에서 제사장으로 임직하였다. 이러한 보도의 차이는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한 사건에서도 뚜렷하다. 신명기 3:12-20에 의하면 모세가 요단 동쪽 땅을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후 그들에게 가나안 원정에 끝까지 동참하라고 호소했다고 회고한다(또한, 신 29:8). 그러나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원정에 동참할 것을 조건으로 땅을 분배 받는다. 신명기에 의하

면 남아 있는 자들은 이왕에 차지한 성읍들을 거주지로 삼았지만,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남아 있는 자들이 성을 신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소소한 차이들을 장르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2.9. 바알브올 사건

신명기 4:3은 야훼께서 바알브올을 징벌하셨으며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 진멸하셨다고 회고한다(『개역』; 참조, NRSV, with regard to the Baal of Peor; 『표준』 ‘브올산에서 하신 일을…브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사람’). 바알브올이 지명인지 신명인지 애매하다. 이 사건 보도는 민수기 25:1-18에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당도했을 때 모압 신 바알브올과 음행하였는데 이 때 브올은 지명으로 언급된다. 민수기 22:5에는 발람을 브올의 아들이라고 명기한다. 신명기 23:5-6에는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여호수아 13:22에 의하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살육한 점쟁이로서 브올의 아들이다. 민수기 31:16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브올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발람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진술들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장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2.10. 십계명의 안식일 법의 차이

출애굽기 20:11에는 안식일 제정의 근거로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인용한다. 그러나 신명기 5:15에는 안식일 제정의 근거로서 출애굽 사건을 제시한다. 이 두 계명이 서로 다른 진술을 갖게 된 것은 신명기의 장르가 설교문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명기의 십계명 저자가 창세기 1장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으며³⁶⁾ 출

36) 신명기는 조상에게 주어진 땅 약속 상투어를 딱 일곱 차례 명기하고 창세

애굽기의 최종 저자가 신명기의 십계명을 손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11. 기타

신명기가 광야 생활 회고담을 자신의 교차 구도의 짜임새에 맞추어 정교하게 배열하였다. 위에 제시한 신명기의 교차 구도에 따라 회고담이 배열되어 있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신명기의 짜임새에 따라 배치된 모세의 회상기 조감도

가	나	다	라	중앙	라'	다'	나'	가'
신 1-3	신4	신 5-7	신 8	신 9-10	신 11	신 12-28	신 29-30	신 31-34
호렘에서 벧브올까 자; 가데 스바네아 /에돔, 암 몬, 모압/ 시혼과 옥	광 야 기 바 알 브 올 / 호 렘 산 신 현현	호 렘 산 신현현/ 십계명: 법 I	만나 이야기	호 렘 (금 송아지송 배기)/다 베라, 맛 사, 기브 롯핫다아 와, 가데 스바네아	홍해 도해 /다단, 아 비람	신 명 기 법: 발람 /미리암 /아말렉 법II	모압법: 애 굽 고난기/ 광야 유랑 기/ 소돔과 고모라	민수기에 서 이어지 는 모압 이 야기; 모세 의 사망

위에 제시한 표 가운데 신명기법에 나타난 회상기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신명기법(법 II)의 신명기 23:3-4에는 암몬족과 모압

기의 족장사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슈미드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이다. C. Schmid, *Erzväter und Exodus: Untersuchungen zur doppelten Begründung der Ursprünge Israels innerhalb der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WMANT 8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99).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대한 신명기의 지식은 거의 입증할 수 없다 (참조, 신 4:32).

죽이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길에서 떡과 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이 회고담이 암시해 주는 사건 발생의 위치는 광야 40년 여정의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였다. 이 회고담은 신명기 2:8-23의 회고담과 어긋난다. 주께서 롯의 자손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체 암몬과 모압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회고담은 창세기의 롯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반면에, 민수기 22-24장의 발락-발람 이야기에 대한 지식은 보여주지 않는다.

신명기 23:7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보인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이 신명기 본문은 민수기 20:14 이하 구절의 에돔 우회기의 불쾌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 2:1-8 상반절의 기억과 신명기 23:7의 언급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의 에돔 우회기는 다르다.³⁷⁾

37) 민수기 21:4-9의 숫벧 이야기의 신명기학파의 작문층으로 보는 블룸의 견해는 매우 의심스럽다. 신명기 사가의 숫벧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민수기 21:4-9의 일화를 전제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거꾸로 신명기 사가가 채록한 것과 같은 숫벧 이야기 전승을 나중에 P가 오경에 채록해 넣었을 수도 있다. 민수기 11:1-3의 다베라기와 민수기 21:4-9의 평행에서 ‘포괄형’(inclusio)을 보는 블룸의 견해는 내 눈에는 오히려 최종 본문의 짜임새에 더 걸맞게 보인다.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135. 블룸은 이러한 문단 간의 연결상을 가리켜 “저자가 만들어낸 커다란 무지개 모양의 연결상(Ein noch größerer kompositorischer Bogen)”이라고 표현했다(위의 책, 124). 독일학자들은 문단들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 기능을 *Verklammerung*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나는 이러한 기능을 ‘돌쩌귀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신명기 23:14(힉 15) 이렇게 회고한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버케 렵 막하네카’(בְּרַכָּה מַכְחֵנָּה)]³⁸⁾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네 진영 중에’란 어구는 출애굽기 33:3, 5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반하기를 거부하시는 언급과 출애굽기 33:7의 진 바깥에 있는 회막의 위치와 완전히 반대된다. 반면에 출애굽기 25:8; 29:46[‘버토감’(בְּטוֹבָה)]이나 출애굽기 33:14과 잘 어울린다. 이 주제는 출애굽기 17:7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명기 23:14이 현재 모양의 시내 단화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명기 24:9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의 민수기 12:1-16의 하세룻기를 알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미리암의 문둥병을 제사장 아론이 검역했다는 언급은 하세룻기에 나오지 않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란 표현도 하세룻기 최종 본문의 연대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4:17의 아말렉 회고답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란 어구가 민수기 14장의 연대기와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은 출애굽기 17:8-16의 사건 발생 시기와 잘 맞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명기에 수록된 모세의 회고담이 출애굽기, 민수기의 사건 보도들과 차이가 나는 점들은 신명기의 장르가 지닌 독특한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신명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들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의 초본은 토라의 최종 본문을 아직 읽어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토라의 최종본 직전에 회람되고 있었던 최종 직전본을 대본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³⁹⁾

38) 후음 n의 음가를 나타내려고 바로 앞에 ‘ג’받침을 표기하여 주었다.

39) 최종 직전본(penultimate version)을 재건하는 작업은 존스톤이 평생에 걸

3. 출애굽기 31:18-34:35과 신명기 9:7-10:11의 비교

토라의 최종 저자가 선재하던 최종 직전본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개작하거나 자신의 작문을 덧붙여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은 금송아지 일화에 많다.⁴⁰⁾

3.1. 출 31:18

출 25:1과 출 31:18 사이에 연결 장치가 돋보인다.

출 25:1,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출 31:18 상, ויתן אל־משה ככלתו לרִבֵּר אֹתוֹ בַּהֵר שִׁנִּי שְׁנֵי לַחַת הָעֵדֻת,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두 개의 증거판을 주셨다.

처서 수행하였다. 참조, W. Johnstone, *Chronicles and Exodus*, JSOTS 27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존스톤은 이것을 신명기학파의 첫 철자를 따서 ‘디버전’(D-version)이라고 부른다.

- 40) 출애굽기 32장의 기본 본문(Grundschrift)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출애굽기 32:1-6, 15 상, 19-20, 30-34를, 반시터즈는 출애굽기 32:1-8, 15상, 17-24, 30-34를 기본 본문으로 식별한다. E. Aurelius, *Fürbitter Israels: Eine Studie zum Mosebild im Alten Testament* (Stockholm: Almqvist & Wicksell International, 1988), 68, 460;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1994), 295. 쉬밋트는 아우렐리우스의 기본 본문에 21-24절을 더 첨가시킨다. H. -C. Schmitt, “Die Erzählung vom Goldenen Kalb,” (2000), 237 이하. 게르쯔는 출애굽기 32:1-6, 15상전, 19-20, 21-24, 30-34를 기본 본문으로 상정한다(위의 ‘상전’(上前)이란 ‘상반절 전반부’를 줄여 쓴 약호이다). J. C. Gertz, “Beobachtungen zu Komposition und Redaktion in Exodus 32-34,” (2001), 95. 나는 기본 본문을 식별하는 일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출애굽기 25:1에서 말씀을 시작한 야훼께서는 출애굽기 31:18 상반절에서 말씀을 마치셨다. 출애굽기 31:18에서 받은 증거판은 출애굽기 24:18에서 약속된 것이다. 이에 평행하는 신명기 9:11 상반절은 ‘사십일 밤낮이 끝났을 때 두 개의 돌판을 주셨다’고 진술한다. 신명기 본문에는 ‘말씀을 마치셨을 때’란 어구 대신에 ‘사십일 밤낮이 끝났을 때’(וַיְהִי מִקֵּץ אַרְבַּעִים יוֹם וָלַיְלָה)라고 회고한다. 이 차이점은 신명기 9:11이 현재의 출애굽기 31:18 상반절보다 먼저 있었던 본문을 바탕으로 작문되었음을 반영한다. 위에 굵은 글자로 표시한 문구들은 최종 본문의 저자가 출애굽기 25:1-31:17의 부분을 영입할 때 첨가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3.2. 모세의 중보 기도

출애굽기 32:11-14에 의하면 모세는 하산하기 직전 산 위에서 중보기도를 드렸다.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보류되었다. 출애굽기 32:30-35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를 보도한다. 이번에는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거부하신다. 오히려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출 32:34). 이것은 출애굽기 33:1-3의 야훼의 동반 거부 선언 및 출애굽기 33:12의 모세의 신 현존 청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⁴¹⁾ 그러나 신명기 9:18, 25-29은 다르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하산한 후 다시 등산하여 사십일 단식기도를 드렸는데 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냈다고 한다.

3.3. 아론의 심문

출애굽기 32:21-24은 모세가 아론을 심문하였을 때 아론이 백성

41) 더 나아가 출애굽기 32장의 속죄 거부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겨냥하고 있다.

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명기 9:20은 야훼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중재하여 살려냈다고 회고한다.⁴²⁾

3.4. 백성 징벌

출애굽기 32:20은 우상을 빵아 가루로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신명기 9:21은 우상을 잘게 부수어 계곡물에 흘려보냈다고 회고한다.⁴³⁾

3.5. 돌판과 언약궤

신명기 10:1이 회고하는 나무궤를 만들라는 명령은 평행 본문인 출애굽기 34:1-4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출애굽기 25:10-22에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출애굽기 25:21은 돌판을 증거궤 속에 안치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모세는 하산한 후(출 34:29) 성막을 다 만든 다음 최종 단계에서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안치하였다(출 40:20).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다르다. 돌판을 나무궤에 안치하라는 명령을 따라(신 10:2) 모세는 하산 직후에 곧바로 돌판을 나무궤에 넣었다(신 10:5).

42) 출애굽기 32:21-24의 아론의 심문기는 레위기 8장의 아론의 제사장 임직기를 겨냥하고 있다. 장일선은 신명기가 아론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장일선, 『신명기』, 215.

43) 장일선은 이 차이를 인식하지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마르틴 노트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5:16-28의 잿물과의 연결성에 주목한다. Ibid. 나는 출애굽기 32장의 잿물을 민수기 18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에도 연관된다고 본다.

3.6. 아론의 사망

신명기 10:6에 의하면 아론이 모세라에서 사망하였으며 곧 이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민수기 20:22-29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으며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법복을 받았다고 보도한다.⁴⁴⁾

3.7. 레위인 제사장 임직

출애굽기 32:26-29은 모세가 레위 문중을 제사장에게 임명했다고 보도한다(29절 상반절, *וַיֹּאמֶר מֹשֶׁה מִלֵּאזֵּי יְדֹכֶם הַיּוֹם לַיהוָה*).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을 징벌하려고 모세가 지원자를 모집하자 레위인들이 자원하여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친족을 희생하여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고 감격한 모세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⁴⁵⁾ 그러나 신명기 10:7에 의하면 레위 문중은 옷바다에서 제사장으로 지명되어 언약궤를 메게 되었다고 한다. 또 신명기 33:8은 맛사와 프리바 사건에서 레위 문중이 가족을 희생한 공로로 제사장에게 임명되었다고 회고한다. 더 나아가 신명기 10:9은 레위 문중은 주를 섬기게 되니 몫이나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회고하는데 민수기 18장에는 레위 문중이 회막 일에 대한 보수로 십일조와 각종 예물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3.8. 백성 조직

호렙산 출발 명령을 회고하는 신명기 10:11은 거꾸로 신명기

44) 장일선은 민수기 20장의 아론의 죽음 보도와 신명기 10장의 아론의 죽음 보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 Ibid., 209.

45) ‘손을 채우다’란 관용어는 제사장 임직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32:26-29의 레위인 임직기는 민수기 8장의 레위 문중의 제사장 임직기를 겨냥하고 있다.

1:6-8로 이어진다. 출발 직후 신명기 1:9부터 모세의 업무가 과중하여 도우미들을 조직하는 이야기가 회상된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다르다. 시내산 출발 명령(출 32:34; 33:1)이 있는 후에 야훼의 현존 약속(출 33:14)과 두 번째 신 현현(출 34:5-8)과 언약 갱신(출 34:10-26)의 사건들이 더 발생한다. 이드로의 조언으로 백성을 조직한 일은 시내산 도착 직전인 출애굽기 18:13-27에 발생하였다. 이 문단은 시내 단화를 가운데 두고 민수기 10:1-10의 열두 문중 조직기와 대칭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여덟 가지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장르의 차이에 비로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의 저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나왔다. 다시 말하자면 최종 본문과는 다른 이본(異本)이 존재했으며 신명기 회고담을 작성하는 시기에 이것이 널리 회람되고 있었을 것이다. 신명기 회고담의 저자는 최종 직전본에 익숙한 분이었을 것이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회고담이 사경의 보도와 다르게 진술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신명기의 회고담이 근거로 삼은 토라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때 수많은 불일치의 현상들을 해명할 수 있다. 신명기학과의 토라 초본이 최종 본문이 작성되기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학과의 토라 초본’⁴⁶⁾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종래의 역사 비평을 겨냥한 문서 비평학은 최종 본문을 지나치게 해쳐 놓고 그것을 다시 수습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광범한 기록

46) 이것을 에르하르트 블룸은 KD라고 부르고 윌리엄 존스톤은 “D-version”이라고 부르며 존 반시터즈는 “late J”라고 부르고 있다.

교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주지⁴⁷⁾ 못했다고 문서 비평가들은 비판 받기도 한다. 그러나 블룸과 반시터즈와 존스톤과 옷토 같은 학자들이 분석한 대로, 토라의 최종 본문이 완성되기 이전에 신명기학파의 활발한 문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서는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들을 올바르게 해명할 수 없다. 토라의 최종 본문을 감상하는 공시적 읽기의 관점과 최종 직전본의 존재를 추적하여 최종 본문의 성장사를 살펴보려는 통시적 읽기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공시적 읽기와 통시적 읽기는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본문의 ‘표면’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들쭉날쭉 보이는 최종 본문의 성장사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작업은 최종 본문을 더 깊이 읽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우리는 최종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만이 주석가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길이다.

<주요어>

사경과 신명기의 차이, 설교 장르와 이야기 장르의 복합체, 토라의 최종본과 최종 직전본, 신명기학파의 최종 직전본, 최종 본문의 성장사

<Key Words>

Differences between Tetracheuch and Deuteronomy; Complexity of two genres of Moses' preaching and narrative; The final edition and the penultimate version; Deuteronomist version; Growth of the final text

47)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황금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2007), 229.

참고문헌

- 김창주, “개혁교회 신앙의 성서적 토대,” 「말씀과교회」 42:1, 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2007, 68-106.
- 서명수, “금송아지 주조(鑄造)와 모세의 ‘얼굴의 광채’(qaran)에 대한 재고,”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 장일선, 『신명기』,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황금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서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07.
- 조상열, “창세기 6장 2, 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친족성,” 「구약논단」 24, 서울: 한국구약학회, 2007.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편, 「Canon&Culture」 1:1, 서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07.
- 한동구, 『신명기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4.
- Auld, A. G., “Leviticus at the Heart of the Pentateuch?,” F. 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y Douglas*, JSOTS 22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40-51.
- Aurelius, E., *Fürbitter Israels: Eine Studie zum Mosebild im Alten Testament*, Stockholm: Almqvist & Wicksell International, 1988.
- Blenkinsopp, J.,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84.
- Blum, E.,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Brichto, H. C.,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Exemplar of Biblical Idolatry," id., *Toward a Grammar of Biblical Poe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org. ed.,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 Literary Analysis of a Fable on Idolatry," *HUCA* 54 (1983), 88-121.
- Coats, G. W., *Exodus 1-18: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ume IIA*, Grand Rapids: Eerdmans, 1999.
- Gertz, J. C., "Beobachtungen zu Komposition und Redaktion in Exodus 32-34," M. Köckert und E. Blum, ed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Freiburg-Göttingen, 1991, 88-106.
- Gertz, J.C., Schmid, K., and Witte, M.,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Johnstone, W., "Reactivating the Chronicles Analogy in Pentateuchal Studies," *ZAW* 99 (1987), 16-37.
- Johnstone, W., *Chronicles and Exodus*, JSOTS 27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Knierim, R. P.,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d.,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351-399.
- Lee, W. W., "Instructions about Various Public Offerings in Numbers 28.1-30.1: A Conceptual Approach," Gronningen: SBL International Conference, 2004.
- Lee, W. W.,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Grand Rapid: Eerdmans, 2003.
- Lee, Y. J.,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Unit Exodus 31:18-34:35 as the Centre of the Centre of the Pentateuch: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of the Tex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 of Aberdeen, 2005.
- Lohfink, N., "Deuteronomium 9,1-10,11 und Exodus 32-34: Zu Endtextstruktur, Intertextualität, Schichtung und Abhängigkeiten," M. Köckert und E. Blum, ed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Freiburg-Göttingen, 1991, 41-87.
- Milgrom, J.,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PS, 1990.
- Moberly, R. W. L.,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3.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s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Perlitt, L.,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69.
- Propp, W. H., *Exodus*, ABC 2, 2001.
- Rendtorff, R., "Leviticus 16 als Mitte der Tora," *Biblical Interpretation* vol. XI, No. 3/4 (2003), 252-258.
- Rendtorff, R., *The Canonical Hebrew Bible*, D.E. Orton, trans., The Netherlands, 200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 Rendtorff, R.,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 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org. ed. BZAW 147, 1977.
- Schmid, K., "Israel am Sinai: Etappen der Forschungsgeschichte zu Ex 32-34 in seinen Kontexten," M. Köckert und E. Blum, ed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Gütersloh: Kaiser, Gütersloh Verlag Haus, 2001, 9-40.
- Schmid, K., *Erzväter und Exodus: Untersuchungen zur doppelten Begründung der Ursprünge Israels innerhalb der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WMANT 8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99.

- Schmitt, H. -C., “Das sogenannte jahwistische Privilegrecht in Ex 34,10-28 als Komposition der spätdeuteronomistischen Endredaktion des Pentateuch,” J. C. Gertz, K. Schmid, and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157-171.
- Schmitt, H. -C., “Die Erzählung vom Goldenen Kalb Ex 32 und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S.L. McKenzie and T. Römer, eds., *Rethinking the Foundations: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in the Bible: FS John Van Seters*, BZAW 2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235-250.
- Skweres, D. E., *Die Rückverweise im Buch Deuteronomium*, Rome: Biblical Institute, 1979.
- Van Seters, J., *A Law Book for the Diaspora: Revision in the Study of the Covenant Co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Van Seters, J.,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London: New Haven, 1983.
- Van Seters, J.,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Kampen: Kok Pharos, 1994.
- Van Seters, J., *The Pentateuch: a social-scienc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Van Seters, J.,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Verlag, 2001⁴ ; 1995¹, 1996², 1998³.

<초록>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 출애굽기 31:18-34:35을 중심으로 -

이영재

(전주성경학당 길잡이, 구약학)

토라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단들의 위치와 역할은 토라 전체의 짜임새가 파악될 때 비로소 규명될 수 있다. 토라는 가. 창세기, 중양.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 가'. 신명기의 삼부작으로 짜여 있다. 창세기의 중양부는 창세기 25:19-36:43이고,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의 중양부는 출애굽기 31:18-34:35이며, 신명기의 중양부는 신명기 9:7-10:11이다. 이 세 가지 중심부들, 즉, 이삭의 톨도트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계약 갱신기와 광야 회고담은 서로 긴밀하게 상응하면서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명기 본문의 최종 형태는 설교문의 장르와 이야기체의 본문이 결합된 혼합물이다. 신명기 1:6-11:28은 설교문 장르이다. 이 신명기의 회고담은 사경의 사건 보도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차이점들은 신명기가 설교문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금송아지 일화를 비롯한 사경의 사건 보도들을 신명기의 회고담과 일일이 비교해 볼 때 신명기의 회고담은 현재의 사경 본문과는 다른 내용의 본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명기 회고담과 일치하는 본문은 신명기학파의 저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토라의 최종 본문은 신명기학파가 작성한 최종 직전본에 의거하

여 작성되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in Differences between narratives in
Tetrateuch and Moses' reminiscences in Deuteronomy
: highlighting the unit Exod. 31:18-34:35**

Dr. Young-Jae Lee
(Joenju Bible Institut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structure of Torah as a whole in order to decide the position and role of every literary unit in Torah. Torah shows the tripartite structure: A. Genesis, X. Exodus/Leviticus/Numbers, A'. Deuteronomy. The centre of Genesis is Gen. 25:19-36:43, Isaac's toledoth; the centre of Exodus/Leviticus/Numbers is Exod. 31:18-34:35, covenant renewal due to the apostasy of golden calf; the centre of Deuteronomy is Deut. 9:7-10:11, the reminiscence of the wilderness rebellions. These three centres are tightly networked, centred about a theological theme of human rebellion and divine grace.

The final form of Deuteronomy can be judged to be a complexity of two genres, sermon and narrative. Deut. 1:6-11:28 belongs to the genre of sermon, which contains Moses' reminiscence of Israelite past. It is remarkable that the deuteronomic reminiscence betrays lots of differences from

tetrateuchal reports of past events. It is not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differences were created due to the deuteronomic characteristics as the genre of sermon. The overall comparison of Moses' reminiscence with tetrateuchal reports including the episode of golden calf compels the study to argue for pre-existence of a penultimate version, which came to be adopted as Vorlage for the final text of Torah. The assumed penultimate one can be called as 'deuteronomistic vers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final edition of Torah has been completed on the basis of a certain dtr version.